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13호

국가대표 선수 바뀔치기 의혹과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 사유

스포츠윤리센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징계 요구 파문

권종오 SBS 기자

계약해지 사유에 폭력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감독과 재계약

“선수 폭행해도 계약 유지”...제도 개선 시급

김소영 KBS 기자

장정현 성남시탁구협회 회장 9일 사퇴 기자회견 "소급입법 안 돼... 성남시체육회 정치적 중립 지켜야"

"성남시체육회, 사후 규정 변경으로 회장 지위 박탈·제한 안 돼"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김나미(54) 신임 사무총장

체육회 첫 여성 사무총장 김나미 “105년 장편드라마에 의미있는 엑스트라로 남고파”

김용일 스포츠서울 기자

전국규모대회 최초 농구 경기 도입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 시 생중계된다

심진석 아시아경제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스포츠윤리센터
KOREA SPORT ETHICS CENTER

스포츠윤리센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징계 요구 파문

대한탁구협회와 전·현직 협회 임원들이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과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의 사유로 징계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대상자 중엔 탁구협회장 출신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포함돼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관계 기관을 영문 이니셜 A협회로 표현했는데 이 단체는 올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탁구협회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신욱 후보는 올해 1월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라고 받아췄던 유승민 후보는 나중에 기자회견을 열어 페이백 의혹에 관해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 100억원의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5천만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고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윤리센터는 당시 유승민 후보의 해명과는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센터는 이날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협회 임직원으로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은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센터는 또한 "협회장을 포함한 4명에 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며 "협회에 관해선 기관 경고하는 한편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센터는 탁구협회의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리센터는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피신고인은 회의를 마친 날 (유승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D선수가 C보다 성적이 앞선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뒤 추천 선수를 D로 변경했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 하지만, 탁구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체육회장이 징계 대상자가 돼 곤혹스러워진 대한체육회는 일단 대한탁구협회의 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인데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 회장이 해명한 내용과 달리 스포츠윤리센터가 인센티브가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유승민 회장의 리더십이 일찌감치 좌초될 위기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수 폭행해도 계약 유지”…제도 개선 시급

KBS 뉴스 경남대학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경남권역 주관대학 선정

창원

앵커

감독에게 폭행당해 13년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던 한 청년의 소식 이어갑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는 계약 해지 사유에 폭력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감독과 재계약까지 맺었는데요.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소극적인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한 경주시청 철인 3종 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계약 관행을 통한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선수 표준계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수들에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 표준계약서'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체육회가 지도자와 계약할 때 해지 사유에 폭력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경남의 한 체육회가 선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독과 재계약을 맺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서상에는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니 즉각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든 경기도의 사례는 본받을 만합니다.

경기도는 자체 용역을 거쳐 2023년 지도자 표준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폭력과 괴롭힘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지도자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 준수를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박병영/경남도의원 : "선수 폭행 관련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일어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계약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아마 우리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선수를 폭행한 감독의 징계를 미루고, 재계약까지 한 경남의 한 체육회.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남시체육회, 사후 규정 변경으로 회장 지위 박탈·제한 안 돼"

"성남시체육회는 탈법적인 규정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

성남시체육회가 성남시종목단체규정 개정을 통해 종목단체회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보조금 지원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 장정현 성남시 탁구협회장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장 회장은 "성남시체육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성남시종목단체규정을 개정하여 종목단체회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며 "체육회로부터 성남시탁구협회 회장 당선 축하 인사와 회장 인준 승인을 받고 대의원 총회를 거쳐 임기를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안극수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단체가 있다면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으로 관여 돼 있는 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체육회는 다음 날 18일 임시 이사회 개최를 통해 성남시체육회 규정 개정(안) 심의 건을 상정했다. 내용은 성남시 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1항 6호에 나타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뿐이었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직자(정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직책을 받은자)'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 규정에 없던 '정당의 당직자' 항목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추가된 것이다.

장 회장은 "체육회 규정과 선거법을 준수하며 당선되었고, 체육회에서 인준까지 하여 동호인들이 기다리는 각종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육단체장들과 탁구동호인들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의 부당한 탄압에 법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끝까지 부당함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급입법은 위법이다. 성남시체육회 임시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규정한 제26조 개정안 조을 추가는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소급입법'"이라며 "따라서 정당한 선거 과정 및 대의원들의 동의로 선출된 회장의 지위를 사후 규정의 개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 주된 목적' 설립 운영 단체 하나라도 있나"

그러면서 "법적근거도 황당하다. 체육회는 규정 개정의 관련 근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황당한 내용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며 "체육단체 관련 법률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공색한 근거로 삼고 있다. 성남시체육회 단체 중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하나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규정 개정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것에서 보듯 체육회가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들의 권리보호 의무를 버리고,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3월 17일 안극수 위원장의 보조금 지급 중단 발언, 18일 이사회 결의, 19일 사무국장 회의에서 졸속으로 통보, 5일 이내 정치적 중립 확인서(첨부자료 참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목단체 회장이자 대의원의 자격 박탈이라는 중요한 규정은 광범위한 의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률 검토와 적법성 여부마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사회가 대의원 자격이나 박탈에 대한 규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며 "특히 대의원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공감대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기자회견 말미 사퇴의사를 밝히고 추가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그는 "탈법적이고 정치적인 규정 개정으로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체육회와 이것을 조장한 성남시는 각성해야한다"며 "저는 성남시체육회의 불법적 규정 개정으로 인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규정 개정으로 인한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자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규정개정안내 및 회원종목단체 회장 정치적 중립 관련 확인서 제출 요령 공문' 및 '정치적 중립 확인서'등을 공개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위한 관련 절차 진행해와... 보조금 지급은 이사회 권한"

성남시체육회가 성남시종목단체규정 개정을 통해 종목단체회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보조금 지원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 장정현 성남시 탁구협회장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성남시체육회는 이전부터 체육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안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이어진 절차들은 우연"이라며 "체육단체이나 비영리법인이기때 비영리민간단체 적용은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동일하게 설득하며 이해를 구해오고 있다. 장 회장도 여러 차례 저희와 논의를 이어왔으나 규정문제를 지목하며 현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소급적용은 안되지만(소급적용으로 강제 사퇴시킬 수 없지만) 보조금 지급은 이사회 권한이므로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조금 중단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성남시체육회 이사회가 심의 개정된 사안으로 성남시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체육회 첫 여성 사무총장 김나미 “105년 장편 드라마에 의미있는 엑스트라로 남고파”

“105년이란 대한체육회 장편드라마에 의미 있는 엑스트라로 남고파.”

대한체육회 105년 역사에서 여성 최초로 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에 앉은 김나미(54) 신임 사무총장은 ‘체육계 엄마’로서 역할을 다짐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 있는 체육회 사무총장실에서 만난 그는 주요 업무보고를 받느라 바빴다. “이곳에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고 말한 김 총장은 “내가 아직 국내 체육계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 감사하다. 그간 경험을 살려 유승민 회장을 돕겠다. 내부 조직원과 신뢰를 구축하고,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체육인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솔직히 체육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었다

1980~1990년대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로 활약한 김 총장은 선수 은퇴 후 대한스키지도자연맹을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 국제바이애슬론연맹(IBU) 부회장,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가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러다가 한국을 떠나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바이애슬론 세계챔피언 출신인 독일인 남편 요른 볼슬래거와 한식당 ‘볼킴(Woll Kim)’을 운영했다. 김 총장이 돌연 독일로 떠난 건 유독 정치 외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체육계 현실과 맞닿았다. 어린 시절 오스트리아 국립 스키학교 등에서 수학하며 독일어에 능통했던 그는 선수 은퇴 이후 여러 스포츠 외교 현장에 섰다. 그러나 존중보다 소모품처럼 활용되는 일이 빈번했다.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했다. 또 그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도 각종 외압으로 해체되기도 했다.

김 총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스포츠와 정치 분리 원칙을 강조하지 않느냐. 당시 여러 스포츠 외교 현장에 내가 필요해 도움을 드렸는데, 일각에서는 나를 특정 정치색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큰 상처를 받았다. 또 아무리 좋은 안을 얘기해도 정치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 벽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돌아봤다.

지난 2월 김 총장은 취임을 앞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IOC가 지향하는 양성평등 실현에 맞춰 주요 보직에 여성 인재를 중용해 눈길을 끈 유 회장은 그에게 사무총장직을 제안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IOC 선수위원 선거 등 스포츠 외교전과 궤를 같이하는 각종 현안을 고려해도 ‘국제통’ 김 총장은 최적의 카드였다. 그는 “망설였지만 유 회장의 진심 어린 비전이 마음을 움직인 게 사실이다. 또 남편도 한국 체육계에 네가 못다 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후회 없이 도전해 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도장 깨기처럼 밟아온 체육 행정가의 길

그를 국제통으로 이끈 계기는 IBU 부회장 당선이다. 최고의 스키어에서 IBU 부회장이 된 건 2008년과 2009년 국내에서 각각 바이애슬론 월드컵, 세계선수권을 유치하면서다.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이 준비 과정에서 동계 종목을 잘 아는 독일어 능통자를 찾았다.

당시 연맹 내에 규정집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때다. 김 총장은 국제연맹이 지닌 독일어 규정집을 번역해 연맹에 제공하기도 했다. 연맹은 독일어 뿐 아니라 뛰어난 행정 감각을 뽐낸 김 총장에게 국제연맹 부회장 선거 출마를 권했다. 그는 2006년 선거에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IBU 부회장에 당선했고, 3선까지 했다.

김 총장은 일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 외교전에도 힘쓸 것을 예고했다. 그는 “외교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유 회장을 도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할 것이다. 내가 지닌 네트워크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체육회 차원에서 시행하는 급식지원센터 역시 김 총장의 유럽 네트워크를 활용, 현지 케이터링 서비스를 곁들여 운영할 계획을 품고 있다.

유 회장 체제에서 중시하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및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내 선수 시절 환경과 비교하면 과학적으로 정말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선수의 삶’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 같다. 진로와 복지, 심리 지원 등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자는 기술만 전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의 인생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유럽의 경우 지도자도 철저한 윤리 교육과 동시에 제도적 보호를 받는다”며 “지도자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건강한 리더십을 장려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든 것의 시작은 그간 여러 어려움을 겪은 체육회 조직원의 사기 진작부터 이뤄져야 한다.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쏟을 것이며 체육인 뿐 아니라 우리 직원의 엄마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 AI 생중계된다

전라남도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목포종합경기장을 포함한 20개 시군 58개 경기장에 총 818회선, 681대의 통신시설을 구축, 원활한 경기 운영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주)KT를 주관 통신사업자로 선정, 경기장 실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종합경기장에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이동통신 기지국 및 공개형 대용량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또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통신망을 이원화하고, 기자망을 분리 구축해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AI 스포츠 중계방송을 처음으로 농구 경기에 도입해 생중계한다. AI 기술로 촬영된 경기 영상은 네이버 스포츠, 유튜브, OTT어플에서 실시간,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AI 생중계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 중 최초다.

황병은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전국 대회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중계방송을 통해 생활체육 발전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나주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장애·비장애인 모두 이용”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26986&ref=A>

관악구민체육대회 개최...구민 2000여명 참석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3_0003136983

경기 남부, 장애인 체육 활성화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504140199>

생활체육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서울시민리그’ 참가자 모집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2023300004?input=1195m>

스포츠로 벽 허물다...제주도장애인체육대회 3일간 열전 막 내려

<https://www.news1.kr/local/jeju/5751684>

제천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학교 밖’프로그램 운영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9240>

[이슈톡] 제주 첫 장애인 체육대회...성과와 과제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27246&ref=A>

강원도장애인체육회, 2025 생활체육지원사업 본격 운영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41415145407699>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 건강 증진 선도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50414010007812>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